

철거현장에서 이웃과 연대하며 나눠먹은 밥상 이야기



연대의 밥상

이종건 지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다. ‘구도심 개발로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일컫는 의미다. 낡은 도심에 새로운 주거지나 상가가 들어서면 원주민은 밀려나게 된다. 법박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구도심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대의 밥상’이라는 책 제목도 그렇지만 각각의 목차가 주는 강렬함이 만만치 않다. ‘농성장 침묵 안에서 글을 까먹던 어느 겨울밤’, ‘누군가의 속을 달래고 있을 아현동 작은 거인의 잔치국수’, ‘우리는 곱장갑이 버려진 것들의 몸부림에 빛을 지고 있다’, ‘외로운 현장에서 보리굴비 밥상까지, 이어지는 연대의 인연’ 등은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진중하게 속삭인다.

무엇보다 다음의 문장은 ‘내쫓김을 당하는 자’에 대한 연민을 넘어 공감을 자아낸다. “연대는 타인의 공허함에 웅크린 나를 겹치는 일이다. 스며들어서로 관계하는 일이고 이 모든 폭력을 내버려두지 않



겠다 다짐하는 일이다.”

책의 저자는 이종건 옥바라지선교세터의 사무국장. 전도사이기도 한 저자는 선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 ‘빈곤’을 접했다. 그는 집을 빼앗기고 생계 터전인 가게를 잃으면서도 농성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밥은 먹었어요?”라고 묻는 가난한 이들의 연대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책에 언급된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목격하고 아프다.

아현동 잔치국수는 오래된 아현 포차 거리에 있던 어느 국숫집 이야기다. 아현 포차 거리는 40년 전만 해도 쓰레기 집하장이었다. 인근 시장에서 리

아카로 분식을 팔던 이들이 거리를 청소하며 포차 거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철거를 피할 수 없었다. 어느 새벽 구청 직원과 용역이 강제 집행을 했다. “30년간 자리를 지켜온 포차의 얇은 합판이 포크레인으로 한두 번에 모조리 무너진다. 나뭇구는 식기 사이로 높은 상인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린다.”

저자는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의 울음은 아편을 아프게 한다. 저자는 그대로 쫓겨날 수 없었던 상인들과 애배를 드린다. 얼마 후 작은 거인은 임시로 운영하던 포차를 접고 다시 그 동네의 썩 가게를 구해 들어갔다고 한다. ‘그 동네를 잊지 못해 30년 장사하다 하루아침에 민원으로 쫓겨났던 그 마을에서 국수를 삶는다’는 것이다.

저자에게 노랑진수산시장은 철마다 회를 먹던 기

억이 남아 있는 장소다. 지인들과 봄이면 도다리, 여름에는 민어, 가을이면 전어 그리고 겨울이면 방어를 먹었다. 어느 날 저자는 수산시장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부리나케 달려가 보니 “이미 여러 차례 용역이 지나가 몇 가게는 집기가 다 부서져 있다”

어느 새벽녘엔 건물을 지키기 위해 동료들이 모인다. 한 차례 폭력이 지나고 이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가려는 이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다. 상인들은 각자의 집에서 먹거리들을 가져온다. 막회처럼 송덩송덩 썬 질 좋은 생선들과 살얼기가 제법 들어간 매운탕과 다양한 반찬들이 차려진다. 한마디로 연대의 밥상이다.

대도시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을 대가로 한다. 누구나 단골이었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떠났을 때

드는 허탈감을 경험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허탈감은 애써 가게를 열고 가꿔왔던 주인의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도시의 ‘무슨 무슨 길’로 명명된 명소들은 그만한 상권을 일구기까지의 소상공인들의 피땀이 어려웠다. 거대 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 ‘핫플레이스’라는 허울을 한꺼풀 벗기고 나면 삶을 빼앗긴 이들의 눈물이 배어 있다.

박찬일 요리는 “침탈의 두려움에도 뜨거운 음식 한 그릇의 미각을 이토록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낙관의 힘이 아니었을까. 단숨에 잃고 나면 그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단 한그릇의 음식을 나누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음식이 더 귀하고 맛있게 보이는 아이러니에 빠진다”고 평한다. <롤러코스터·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잔치국수



회



보리굴비



라면

가장 나쁜 일

김보현 지음

정희는 아들 경준을 잃고 말았다. 경준은 2년 넘게 병원에 있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정희는 남편과의 관계도 삐걱거린다.

아무 일 없이 다시 삶을 살아야 하는 정희는 점점 마음이 무겁고 병들어 간다. 단지 살아가기 위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정희는 신장안정제가 없으면 힘들 만큼 약 기운에 취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얼마 후 남편마저 실종된다.

김보현의 장편소설 ‘가장 나쁜 일’은 사건을 위주로 전개되는 소설이다. 민음사의 오늘의 작가 시리즈로 출간된 작품은 실종, 납치, 외도, 자살 기도 등 사건을 모티브로 펼쳐진다. 지난 2011년 ‘자음과 모음’에 단편 ‘고나’를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2015년 ‘땡: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로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특유의 스토리텔러로서의 역량을 검증받았다는 방증이다.

이번 소설은 나쁜 일, 결국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쁜 일은 연달아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 법.

정희는 실종된 남편과 관련된 사소한 미스터리한 정황을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정희에게 두려운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마음 속에 키워가며 스스로를 지옥에 남겨두는 것이다. 얼마 후 정희는 아내의 자살로 남겨진 미스터리한 진실을 찾아나서는 철식이라는 인물과 함께 의기투합한다. 이들은 한마디로 비극의 듀오인 셈이다. 작가는 “소설에 대해서, 소설을 쓰는 동안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족을 붙이려다 그만둔다. 다만 누군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리에 가 닿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말한다. <민음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강화돈대순례

이광식 지음

강화도에는 이름난 역사 유적들이 많다. 그 가운데 특이한 유적 가운데 하나가 ‘강화돈대’이다. 조선 후기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소규모 해안 방어 시설로 적의 동태를 파악하거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었다. 밖은 성곽 형태이고 안은 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넓게 쌓았다.

강화도의 숨은 보물 돈대를 순례하며 펴낸 책이 있다. 일명 ‘강화돈대순례’. 우리나라 우주전문 분야 저술가인 이광식 씨가 펴냈으며 ‘세계 유일의 해상 방어기지, 강화돈대의 르네상스를 꿈꾼다’는 부제가 담겨 있다.

일찍이 저자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깊어 ‘한국근현대사사전’ (공저)과 ‘우리 옛시조 여행’을 펴낸 바 있다. 강화의 돈대에 필이 꽃인 이후 해안 100km를 답사하며 모두 54개에 이르는 돈대를 탐방 취재했다.

저자에 따르면 강화돈대 대부분은 숙종 5년(1679)에 완성됐다. 함경도를 비롯해 황해도, 강원도 승군 8900명과 어영군 4300명 석수 등 보조인력 2000명이 투입돼 80 일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건립됐다. 평균 1개소 당 연인원 2만5000명이 투입된 셈으로 강화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최대의 역사(役事)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에 열거된 돈대들은 저마다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다.

앞에는 바다, 뒤로는 평야가 있는 ‘망월돈대’, 아름다운 반월형의 해남이 명소 ‘굴암돈대’, 강석해협의 길목을 지킨 ‘장곶돈대’, 동막해변의 제1명당 ‘송곶돈대’, 단정한 형태의 아름다운 ‘후애돈대’ 등 저마다 특징을 지닌 돈대의 역사성은 오늘의 관점에서 강화의 유적의 가치와 역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들메나무·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이 알고 싶다

안인모 지음

2019년 출간 후 클래식 입문자와 애호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고 클래식 대중화에 방점을 찍은 베스트셀러 ‘클래식이 알고 싶다’의 두 번째 책이 출간됐다. 저자 안인모는 국내 클래식 콘텐츠 제작자이자 스토리텔러로 평가받고 있다. 1권 ‘낭만살롱 편’에서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과 음악가들을 다뤘다면 2권 ‘고전의 전당 편’에서는 클래식의 기원과 뿌리, 바로크 고전음악 이야기를 담았다.

17-18세기에 펼쳐진 바로크 고전 음악가들의 인생 이야기를 현재진행형으로 생동감 넘치게 서술했다.

사제이기에 제약된 삶을 살았지만 음악에서만큼은 솔직하고 자유로웠던 비발디, ‘음악의 아버지’라 평가받지만 삶은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험악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바흐, 대중의 취향을 정확하게 꿰뚫은 타고난 흥행사이자 비즈니스 전략가 헨델, 빈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유일한 음악가 하이든 등 거장들의 당시 일상과 고민을 21세기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감수성에 맞춰 생생히 재현해 냈다. 아울러 음악가들의 삶과 명곡이 탄생하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모두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음악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접했던 위대한 음악가들의 삶은 인간적이고 수평적인 시선으로 조명했다.

책은 200여 개의 명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 QR코드를 본문 중간에 수록해 ‘독서와 음악 감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클래식 엔터테인먼트북’으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 클래식 입문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클래식 용어를 정리한 ‘레알콕알’ 코너와 음악가들의 비화를 담은 ‘배알개알’ 코너와 더불어 지금 바로 클래식 대화가 가능해지는 음악 가별 주요 리스트와 추천 명곡 플레이리스트를 추가했다. <위즈덤하우스·1만75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키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8월호

2022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정원에서 힐링하다

- 나의 정원이 모두의 정원으로
- “그 섬에 특별한 정원이 있다”
전남 민간정원 1호 ‘힐링파크 쑥섬쑥섬’
- 전라남도 정원 문화와 산업 가꾼다

GWANGJU TOUR

연중 기획-광주 한바퀴

#8월 광주여행
#동명동 일대 풀리 #광주읍성과 풀리 #충장로 풀리
#뚝뚝의 공간 속 풀리

여름기획
음악, 문학, 미술의 아름다운 바다
‘예술여행’ 원한다면 통영으로 떠나요

에앙 초대석

문태준

“문장을 얻는다는 것은 새 마음을 얻는다는 뜻”

기회-유럽은 지금 미술축제 중
- 장현우 관장의 유럽 미술 빅이벤트 관람기
- 예술 축제의 도시들에게 배운다

황영성 화백의 아메리카 그림 여행①
오래된 화첩에서 매력적 미국 풍경이 살아난다

철·학문 드높은 하시 김인후 배향장성 필암서원

황인영의 ‘예술가의 한 끼’ ㉞
뒀든 느린 미술평론가 유준상 점심 요리 저녁 대야 완성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㉞
영화 ‘브릿지 존스의 일기’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